

박나래 “추억 담긴 고향 발전 위해 기부제 성공 정착되길”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 일곱 번째 주자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지낸 전남은 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에요. 추억이 담긴 고향 전남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응원합니다.”

남다른 흥과 끼로 국민들에게 큰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동참했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에 국민배우 김수미, 김황식 전 국무총리, 트롯여신 송가인 씨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박나래 씨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씨는 목포 출신으로 ‘나 혼자 산다’의 주진행자를 맡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각종 TV프로그램을 통해 ‘목포의 딸’을 자처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목포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제1회 섬의 날’ 행사 홍보 영상 출연 등 전남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도장터 상품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여수 갯김치, 나주 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이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과 천연염색 체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콜핑, 지진 피해 튀르키예에 구호 물품 긴급 지원

아웃도어전문기업 콜핑은 최근 발생한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아웃도어용품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콜핑은 현지에서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이 거주 시설과 방한용품이라는 점에 주목해 텐트 150동, 침낭 400개, 어린이용 패딩 300벌 등 3억 원 상당 물품을 지원한다.

박만영 콜핑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슬픔에 빠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히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나승중 지스트 기술경영아카데미 총동문회장 취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총동문회(회장 나승중)는 최근 지스트 오룡관에서 GTMBA 제9차 정기총회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기선 총장, 제5대 총동문회장인 (주)프로텍 이용범 회장을 비롯해 동문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진(주) 나승중 대표이사가 제6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GTMBA 제7기 나승중 동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효진(주)는 1996년에 설립된 전기 분야 엔지니어링 및 건설 전문 업체다. 주력 업종으로는 전기공사, 소방공사와 소방공사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있다. 나승중 총동문회장은 취임사에서 “임기 동안 신규 사업 등을 통해 GTMBA 총동문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의 업적들을 더욱 공고히 계승 발전시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동문회로 가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사 지평 넓은 원로 사학자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조선시대 연구로 한국사의 지평을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원로 사학자 한영우(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출판사 지식산업사 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숙환으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충남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한국사연구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경기문화재단 이사, 서울대 인문대학장 등을 지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약 4년간 서울대 규장각 초대 관장을 맡기도 했다.

고인은 조선시대와 근대사 연구에 전념해 온 우리나라 대표 역사학자로 꼽힌다.

/연합뉴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튀르키예 성금’ 모금 캠페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주경남)은 15일 오전 타운 복지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제공>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 ◇고위공무원 임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 이정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파견) 이진식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하프와 친구들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8:00 댕댕용 유치원 08:2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08:35 한글용사 아이야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20 시뮬 09:35 타타와 쿠마 09:4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EBS 교육진단 13:00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13:50 명의 14:45 한국의 둘레길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5:35 꾸러기 천사들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퍼 피그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16:40 댕댕용 유치원(재)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17:30 번개맨과 안전맨 18:00 생방송 워킹해결단 19:00 정글 플래닛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자연이 그리워서, 동물레이시아 -열대 우림을 느끼고 싶다면> 21:30 한국기행 <나의 낭만 하우스 4부 부석사 아랫집> 21:50 극한직업 22: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시간탐험대 다이나맨	30 고향이 보인다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김진표 국회의원>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김진표 국회의원	
00 KBS 뉴스 12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꼭두의 계절(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법전(재)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영상앨범 산(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00 상상꾸러기 꾸다 2 15 줌비덤 3 30 매직퀀텀 대표홈 45 프라몬 원정대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몽계공항 3(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엘리가 간다(재)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15 꼬마공룡 크앙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특집다큐 농사직설(재)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풍의 신부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30 내 눈에 콩깍지	30 홍길동전		30 KBC 8 뉴스	
00 KBS 뉴스9	50 연모(재)	00 다큐 M	00 모범택시 리턴즈 -윤형 재개 스페셜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00 심야교과목회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0 KBS 뉴스라인	00 연중 플러스	20 문화콘서트 난장		
10 9중 시사극(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통합뉴스룸 ET(재)	30 광주MBC 보드 스페셜 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나이트라인 30 전국 TOP 10 가요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6일(음 1월 26일 乙巳) ☎ 010-9790-8237

36년생 내세운다면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48년생 자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0년생 반드시 부린 대로 거두고 보낸 대로 돌아올 것이다. 72년생 의외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84년생 지나간 흔적을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되리라. 96년생 다들 다들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행운의 숫자 : 43, 82

37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리라. 49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하고야 말 것이다. 61년생 잘 될 것이니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73년생 행세를 타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85년생 한번의 실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97년생 오래 가지 않게 빨리 잠재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0, 60

38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다. 50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삼가는 것이 면책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62년생 실행하기 전에 유경험자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신식하고 있는 관점의 차원을 뛰어 넘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다. 86년생 애매할 것이다. 98년생 약속되어 있는 바나 마찬가지이다. 행운의 숫자 : 37, 66

39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51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63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75년생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언행하는 이가 보인다. 87년생 일회성이거나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99년생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6, 59

40년생 묵묵히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52년생 큰물로 나아가야 대어를 잡을 수 있으니라. 64년생 큰 노력 없이도 수월하게 이익을 얻는다. 76년생 속단은 후회나 실패를 몰고 올 것이다. 88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00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연 다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61

41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53년생 앞에 거칠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니라. 65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77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지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89년생 웃은 세상이 좋고 사람은 오래 된 이가 좋은 법이다. 01년생 앞당겨 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54

42년생 활기 찬 하루가 될 것이니 용기백배하자. 54년생 진솔함이 생산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66년생 전혀 딴 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78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없을 것이 없는 법이다. 90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02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물 또한 훌륭한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2, 94

43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취월장할 수 있다. 55년생 인간은 쥐어 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아느니라. 67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79년생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91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03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47, 97

44년생 적응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56년생 선택을 잘 한다면 실리를 취하게 되는 본원이 된다. 68년생 전혀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을 수다. 80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92년생 반점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04년생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형세는 마찮가지이다. 행운의 숫자 : 42, 70

45년생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뒤은 대로 간다. 57년생 조처하자마자 절실히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9년생 감각이 둔해지면서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형상이다. 81년생 마음이 풀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93년생 지나치다 면 마음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05년생 총동원되어 성사를 기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9, 96

34년생 상대적인 변수가 나타나서 예상 밖의 판도를 구성할 수도 있다. 46년생 얼마 만큼 치밀한 상황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진다. 58년생 자신이 예상해 왔던 바대로 진행하게 되리라. 70년생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82년생 지극히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94년생 실수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행운의 숫자 : 23, 78

35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47년생 성급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자기가 절실하다. 59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방한 것으로 자기 위안해도 된다. 71년생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커서 낙심하겠다. 83년생 갑자기 앞질러 나가려는 이가 있을 것이다. 95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87